

시론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지역 청년 일상·성장 잇는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하고 있으며,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대에서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이하 상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무센터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점 공간으로, 지역 대학이 축적해온 교육 경험과 현장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이 일상과 사회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과 프로그램, 정책 연계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기반 체계도 함께 강화해 왔다. 센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상담과 프로그램 신청,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정비하고, 다양한 흥보 채널을 연계해 청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센터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센터와 청년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상무센터는 획일적인 교육 제공에서 벗어나, 청년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비교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부터 일정 기간 자신의 진로와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형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마련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은 물론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을 돋는 활동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상담을 통해 파악한 청년의 욕구와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청년이 정해진 경로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프로

그램 참여를 단발성 경험에 그치지 않게 하며, 상담과 정책 연계로 이어지는 참여 구조를 만들어 간다.

센터 내부에서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상담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고용정책의 변화 흐름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이어가며,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상무센터는 청년이 다양한 고용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기능을 강화해 왔다. 상담 과정에서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한 설명회와 현장 연계를 통해 정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은 단기간의 취업 성과를 목표로 한 접근이 아니라, 청년의 변화 과정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상무센터의 공간, 상담, 프로그램, 정책 연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운영방식은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는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최우수' 등급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6년에도 상무센터는 청년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응답하는 현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청년의 일상과 진로, 사회로의 재진입 과정 전반을 함께 고민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상무센터가 됐으면 한다.

의료칼럼

곽 희 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허리디스크처럼 다리가 저리는 '이상근 증후군'

축 또는 신장되면 근육 아래에 위치한 좌골 신경을 압박하는데 이를 '이상근 증후군'이라 부른다.

증상은 이상근 자체의 문제로 인해 둔부의 통증을 보이며, 압박된 신경이 지나가는 주행경로를 따라 하지저림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허리디스크와 혼동하기 쉽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FAIR test'라는 이학적 검사로, 환자는 환측 다리가 위쪽으로 향하게 옆으로 눕는다. 이 자세에서 환측 다리의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60도 굽혀 올린다. 검사자는 한 손으로 환자의 골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환측 무릎을 잡아 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는데 이 때 통증이 나타나면 이상근에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이상근 증후군은 특히 허리디스크와의 감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디스크와는 달리 발목 아래까지 저림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허리디스크는 하지의 감각 변화나 균력이 악화가 생기는 반면에 이상근 증후군은 그렇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이상근 증후군은 상기했듯이 진단이 쉽지 않으므로 치료시 호전도를 판단하는 진단적 치료를 행하기도 한다.

질병 자체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여서 비수술 치료가 권장된다. 그 중 근육과 신경에 직

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침구치료가 효과적이다. 치료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혈위는 '환도(環跳)'이다. 환도혈은 엉치뼈에서 허벅지뼈의 큰돌기기둥에 선을 그어 3등분을 했을 때 바깥에서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다. 환도혈의 혈위 자체가 이상근 위에 있어 직접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침치료는 도침과 약침을 주로 시술한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피부에서 5cm 정도 깊숙하게 위치하므로 초음파 유도하에 침구치료를 시술하는 것이 정확성과 안전성에서 권장된다. 도침치료는 유착된 근육을 절개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미세자극을 통해 혈류순환을 유도하여 만성으로 굳은 근육을 치료한다. 또한 침을 더 깊숙히 자입해 좌골 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도 있다. 약침은 어혈을 풀어주고 신경염증을 억제해주는 한약재를 주출해 직접 주입하는 치료로 신경 통을 동반한 경우에 좋다.

생활관리로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등의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동작은 삼가야 한다. 평소에 고관절과 둔부쪽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다.

신경의 특성 상 한 번 문제를 생기면 불편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치료는 가능하기에 절대 지치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받길 권한다.

독자투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 학교' 소망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건수의 증가를 넘어, 가해·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지능화·흉포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사소한 갈등도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의존 심화'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행정 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 ↑)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6.4%), '신체 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2026년,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관심'으로,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1:29:300)'처럼, 평소 아이들이 보내는 언어적·행동적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인식의 전환'으로, '내 자녀를 무조건 감싸기보다,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시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아닌,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면,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가정에서 단호하게 교육해야 한다.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땐, 혼자 고민하기보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과 상담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 학교'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최관중·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本土 説

부동산 거래 절벽 심화에 하나둘 사라지는 중개업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도심 곳곳의 중개업소마다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국세청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광주 4천433명, 전남 2천609명 등 총 7천43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205명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전체 거래량은 5천831건에서 4천731건으로 20% 가까이 급감했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모든 유형에서 비슷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이상의 수치를 뛰어넘는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준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계약이 불발로 끝난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직접적인 거래 감소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사무실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중개사들의 경영 압박은 더욱 커지고 폐업이나 휴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위축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기조를 명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위축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는 주

강도 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연간 누적 상승률이 8.7%에 이른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지방의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광주·전남 지역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 속에 준공 후 약성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다.

새집을 장만하겠다는 수요마저 끊기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비밀수록 적자'라며 중개업소마다 비명이다. 장기 침체의늪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마땅히 뚜렷한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되살아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휴·폐업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급등세인 수도권 집값을 제어하는 것 만큼 흑한기를 맞은 수도권의 활동력을 고민해야 한다. 공급을 대폭 늘리는 대책도 중요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 또한 핵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손해를 감수하며 벼랑 끝에 선 중개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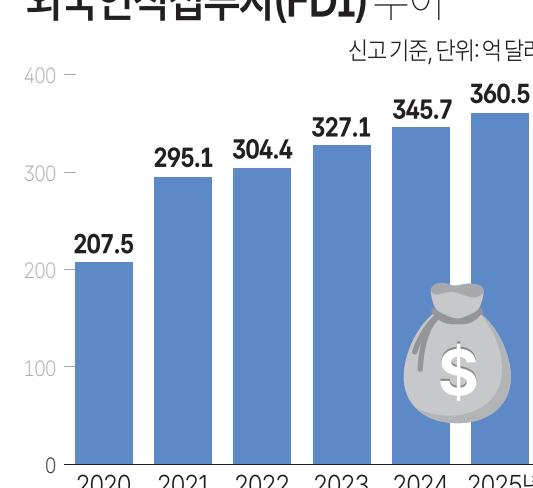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업이 밀집해 크레인 중량물 이탈, 지게차 충돌, 블록 낙하 등의 작업에 따른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해만 9월까지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 통계도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서다. 전남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지난해에서 건의한 까닭이다. 체험장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 사례를 실제로 겪어보는 체험장을 통해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해만 9월까지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 통계도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건조하는 선박들이 대형화, 고도화되는 주제로 그만큼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산재 사고를 없애는 것이 경쟁력의 척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연합뉴스

자료: 산업통상부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억5천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FDI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 FDI는 43% 증가한 360억5천만달러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205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5년 만에 73% 증가했다.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은 도착 금액은 163% 증가한 179억5천만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FDI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지만 하반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전이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190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과 유럽의 투자는 눈에 띄게 늘었다. 미국의 투자는 97억7천만달러로 86.6%, 유럽연합(EU)의 투자는 69억2천만달러로 33.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천만달러(-38.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 케팅 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1	편집국 650-2017